㈜하랑A+
전국최고 분양대행 선두주자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번영로 53, 4층 T.062)673-2900

전남도민일보

24시 굿모닝 보석 불가마 사우나
혈액순환 촉진 / 뛰어난 발한효과
각종 노폐물 배출!
첨단 중앙로 152번길 31 T.0507-1662-2207

제 2880 호 대표전화 (062) 227-0000 jndomin.kr (음력 12월 25일) 2022년 1월 27일 목요일

장성군수 선거, 현직 3선 출마에 도의원 2명 '도전장'

유두석 군수, 업무 추진·조직력 강점…잦은 구설수
전남도의회 후반기 의장 김한종 의원 당내입지 탄탄
유성수 의원 '일잘하는 의원' 광폭행보로 인지도 높여

유두석 장성군수

김한종 전남도의원

유성수 전남도의원

장성군수 선거는 유두석 군수의 3선에 맞서 더불어민주당 지역구 도의원인 김한종 의원과 후반기 교육위원장 유성수 의원이 출마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치열한 3파전이 예고된다.

특히 이번 지방선거는 대선 결과에 따라 판세가 요동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3선 고지를 노리는 유두석 군수의 수성여부와 현직 도의원들의 거센 도전이 지역민들의 관심을 끈다.

장성군수 선거는 유두석 현 군수가 3선 연임 성공 여부다. 유 군수는 오랜 공직생활과 풍부한 군정 지휘 경험을 토대로 지역 현안을 잘 풀어왔다는 평가지만 재임동안 크고 작은 구설수에 오른 것이 약점으로 꼽힌다.

유 군수의 대표적 성과는 국립아열대작물실증센터, 국립심뇌혈관센터 유치다. 또 '옐로우시티 장성' 을 통해 장성의 이미지를 높이고 황룡강 국가정원 지정 추진, 장성호 수변 백리길 조성 공약의 순조로운 이행이다.

최근 착공에 들어간 장성읍 하이패스IC 신설과 준공을 앞둔 옐로우시티 스타디움 건립, 지난 2019년 KTX 장성역 재정차도 대표 공약 이행 사업으로 손꼽힌다.

유 군수는 그동안 쌓아온 탄탄한 조직력도 무시할 수 없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민선 4·6·7기 3번의 장성군수 선거를 무소속으로 치리면서 다져진 조직력과 높은 인지도가 상대 출마자들을 앞선다. 하지만 성폭력 파문을 비롯 계약직 공무원에 대한 직권 남용등 적잖은 사건들이 끊이지 않아 지역민들에게 이미지가 크게 훼손된 것이 약점으로 꼽힌다.

유군수에 도전장을 내민 전남도의회 후반기 의장인 김한종 의원(장성2)과 후반기 교육위원장 유성수 의원(장성1)이 출마를 공식화하면서, 현직인 유두석 군수와 공천과정에서 치열한 경쟁이 불가피해졌다. 두 의원은 후반기 도의회 중책을 맡고 있는데다 경력까지 탄탄해 결과를 선불리 예측할 수 없다는 여론이다.

김한종 의장은 민주당 전남도당 부위원장으로 당내에서도 입지가 탄탄하다는 평가다. 김 의원은 제7대 전남도의회 의원·예산결산위원장, 제9대 전남도의회 의원·농수산환경위원장, 제11대 전반기 부의장 등을 역임하고 지난해에는 도의회 개원 이래 최초로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으로도 선출되기도 했다.

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장인 유성수 의원이 장성군수 선거에 뛰어들면서 당내경선이 더욱 치열해졌다. 유의원은 초선임에도 지역민들이나 의회내에서도 일 잘하는 의원이라는 평가를 듣는다. 원광대학교 약학과를 졸업하고 장성군 소상공인회 초대회장, 장성군 약사회 분회장으로 활동 해온 유의원은 제11대 전라남도의회 의원에 당선된 뒤 초선에도 교육위원회 위원장자리를 꿰차며 광폭활동을 벌이며 주목을 받아왔다.

유 의원은 전남교육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활동하며 도의회에서 조례를 12차례나 대표발의 할 정도로 활발한 활동을 펴왔다. 코로나19로 인한 학습결손과 격차에 대응을 위해 '전라남도교육청 원격수업 활성화 조례'를 제정을 비롯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교육청의 지역 업체 구매 비율이 낮은 사실을 지적하고 지역 업체 구매 비율을 높이도록 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했다. 또 장성군 소상공인회를 이끌며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과 경쟁력강화 방안에 앞장설 정도로 지역에 대한 애착이 높다.

유 의원은 뚝심과 강한 추진력으로 지역 정치에 임하는 소신과 철학, 비전도 뚜렷하다. 정치에서 '소통'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삼고있는 그는 의회가 유권자에게 정치적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들로 구성된 만큼 유권자의 뜻이 현실에서 실현되도록 최선을 다하고있다.

지역정가 관계자는 "대선과 3개월 차이로 실시되는 내년 지방선거에서는 일반 유권자들이 대선에 보다 관심이 쏠리고 있으나 어느때보다 변화와 새정치를 갈망하는 지역 유권자들의 투표 성향이 맞물리면서 의외가 결과가 많이 나올것"이라고 예상했다.

/특별취재팀

前 농림축산식품부 차관보 오병석, 강진군수 선거 출마 선언

더불어민주당 소속 오병석 前 농림축산식품부 차관보(이하 오 前 차관보)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강진군수 선거 출마를 공식화했다.

오 前 차관보는 지난 24일 기자회견을 통해 "제가 나고 자란 강진의 어려움을 더 이상 외면 할 수 없었다"며, "소멸고위험지역인 강진을 살기 좋고 인심 좋은, 작지만 강한 강소군으로 만드는데 혼신의 정렬을 바치겠습니다"라며 이번 지방선거에 뛰어드는 심경을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 국무총리실 등 중앙부처와 공공기관인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CEO(원장) 등을 역임한 오 前 차관보는 "강진농고 출신의 부족한 제가 차관보(1급)를 거쳐, 공공기관CEO까지 약 30여년의 공직생활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할 수 있었던 것은 고향인 강진군민 여러분의 진심어린 응원과 격려가 있어서 가능했던 것"이라며, 공공기관의 장으로 보장된 임기를 1년여 남기고 스스로 포기한 사유에 대해 " 그 동안 받기만 한 고향의 은혜를 갚을 때가 됐다는 출향인과 군 내 선후배, 주민들의 요구를 더 이상 외면하기 어려워, 보장된 임기를 포기하고 강진군수에 도전하고자,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하게 됐다"며,입당과 함께,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농업농촌대전환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된 오 前 차관보는 "천하의 근본인 농업·농촌과 우리 강진의 발전을 위해 어떠한 역할도 마다하지 않을 것"이라며, 농수산업이 산업구조의 70% 이상을차지하는 강진군의 위기해결에 적합한 다양한 경험과 인적네트워크를 갖춘 적임자임을 호소했다.

그는 현재 강진군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위기를 해결하고, 고속도로·철도 등 교통망 확충에 대비한 ' 2030 新강진 마스터플랜'을 조속히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오 前 차관보는 강진경제 재도약을 위해 ①강진쌀 명품화, 커피생산에서 문화·자격증 교육까지 강진을 커피의 메카로 만들기위한 ②융복합 커피클러스터 육성, 노인이 행복한 ③情다운노인 돌봄 등을 제시하면서, '교통·주거·교육·농가소득·노인복지·R&D' 등의 핵심사업 추진을 통해 강진이 안고 있는문제를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자세로 헤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윤규진 기자